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사회뉴스를 활용한 논리적(비판적) 글쓰기	학번 :1424
()월 사회 뉴스 톺아보기1) 활동		이름 :정재황

사회 관련 신문기사 분석하기 수행평가 학습 활동 안내	
평가 포인트	행복, 자연환경, 도시, 촌락, 인권, 경제, 불평등, 문화, 인구, 에너지, 자원, 미래라는 통합사회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를 수집·분석한다.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의 기사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비판적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을 작성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역량 및 심미적 감수성 역량을 향상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활동1	통합사회의 핵심 개념 및 학습 내용과 연결된 기사 1가지를 찾아 전체를 찾아서 기록하고 활동지를 완성하세요.
핵심 개념 및 학습 내용	(표1에서 찾아 쓰세요) 인권 -> 군인 인권
기사 제목	"나라 대신 주차장 지키라고?"...군인에 시킨 폭염 갑질 논란
기사 날짜	2025.08.21
발행 기관 작성자	매일신문 장성혁 기자
기사 링크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82109183073424
기사 요약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who/when/where/what/how/why) 지난 4일 오전 9시 20분 경 경기 평택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군복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구역 빈 칸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제보자가 주차를 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군인은 재차 손을 흔들며 주차가 어렵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제보자는 “무더운 날씨에 군인이 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남성이 간부 수첩을 든 모습을 보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동시에 해당 행위가 갑질이나 부당 지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국방색 러버콘이 나왔다 , 간부 지시라면 명백한 갑질, 상관을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뉴스를 선정한 이유 (200자내외)	군대는 수직적 관계라는 점에서 인권 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뉴스는 군대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고 있는 갑질과 인권 침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표1〉 신문 기사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통합사회 핵심 개념과 학습 내용					
단원	핵심 개념	단원	핵심 개념	단원	핵심 개념
통사1 2단원	행복	통사1 4단원	산업화, 도시화, 교통 통신,기술발달,지역 변화	통사2 3단원	경제, 금융, 무역, 자산 관리 환율, 무역수지, 합리적 소비
통사1 3단원	자연환경, 기후, 지형 환경문제	통사2 1단원	인권	통사2 4단원	세계화, 평화, 남북 분단 역사 갈등
통사1 4단원	문화, 전통문화 문화의 다양성, 다문화	통사2 2단원	정의, 불평등	통사2 5단원	인구 자원,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 2	신문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보고 의문점이 나는 것을 직접 조사해봅시다.
신문기사의 주제	<p>자신이 선택한 신문 기사의 주제는? 핵심 개념과 연결되는지 생각해보기!</p> <p>군인 인권</p>
신문기사 주제와 우리 삶과 연결고리	<p>우리는 그 문제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p> <p>군대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꼭 거쳐가야하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만약 군대에서 갑질과 인권 침해로 겪고 온 사람들이 회사에, 직장에 취업하며 새로운 갑질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군인들이 수직적 구조에 얽혀 이러한 갑질에 시달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p>
새롭게 알게 된 것	<p>신문 기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정리하기!</p> <p>과거 갑질은 사회와 분리된 군대 내에서 일어나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 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대 밖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 까지도 8월 21일 이후로 조사에 특이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회는 아직 군인의 인권 존중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비판적 읽기	<p>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입니까? 기사의 내용은 타당한가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p> <p>블랙박스의 출처가 한 차인 점, cg로 만들어 냈을 가능성, 등을 간과할 수 없다.</p> <p>하지만 6개의 기관에서 뉴스를 내고, kbs뉴스에서는 이를 23일에 송출하였지만 조작 관련 논란 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p> <p>하지만 “무더위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라는 해당 기사 하단에 있는 누리꾼들의 의견과 다소 다른 자신의 의견을 첨부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p>

활동 3	활동 1~2를 바탕으로 사회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 짧은 글을 작성하기 위한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작성 조건	<p>자신이 논평하려는 본래의 기사 작성 날짜, 출처, 분야, 기사 제목 ex) 2025.8.18. 오마이뉴스, 사회 면 〈기후위기 대응, 탄소만 보면 길을 잃는다〉</p> <p>제목 : 재구성하여 제목 짓기</p> <p>서론 : 해당 기사를 선정 이유(신문기사 주제와 우리 삶이 연결된 부분 찾기)</p> <p>본론 : 기사 내용 요약 및 새롭게 알게 된 것, 비판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p> <p>결론 : 의견 정리 및 요약, 앞으로 추가 조사 계획 등 자유롭게 마무리 짓기</p>
<p>2025.08.21. 매일신문, 사회면(인권) "나라 대신 주차장 지키라고?"...군인에 시킨 폭염 갑질 논란</p> <p>제목 : 띄양별 아래 주차장 지켜라...군인 갑질 논란</p> <p>서론 : 군인들이 인권침해에 가까운 갑질을 당하고 있다.</p> <p>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p> <p>본론 : 지난 4일 한 군복을 입은 남성이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다. 제보자인 운전자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자 군인들은 자리가 있다고 손짓하였고 제보자는 언쟁을 피하고 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안타까운 반응들과 군 내부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하고 있다.</p> <p>결론 : 현재 군인들에게 이러한 인권침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u>(내용 삭제후 이곳에 개요를 작성)</u></p> <p>개요는 간결하게 정리한 주요 내용이나 핵심 요점을 의미하며, 문서나 발표의 목적과 핵심 정보를 요약하는 데 사용됩니다.</p> <p>주요 특징</p> <p>정의 및 용도</p> <p>사전적 의미로는 '간결한 요약'을 뜻하며, 학술,비즈니스 문서에서 목적과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활용 위키백과 등 학술 문서에서는 '초록'으로 불리며, 연구의 핵심 결과와 결론을 간략히 제시합니다.</p> <p>작성 원칙</p> <p>일반적으로 1~2문장으로 압축하며, 상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룹니다.</p> <p>문서 구조에서는 첫머리에 위치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p> <p>오용 사례</p> <p>개요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세부 내용을 포함하면 본래의 '간결성'이 훼손됩니다.</p> <p>반대로 한 문장으로만 제한하면 문서 구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p> <p>개요는 정보의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는 도구로, 목적과 핵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다시 쓰는 신문기사

기사 선정 활동지와 신문기사 분석 활동지를 바탕으로 신문기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을 작성해보자.

- 〈 조건 〉 1. 내용 : ① 재구성한 제목 ② 기사 선정 이유 ③ 기사 내용 요약 + 자신의 의견 서술
2. 분량 및 형식 : 5문단 이상, 1문단에는 3문장 이상

퇴양별 아래 주차장 지켜라...군인 갑질 논란

주차장에서 군복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구역 빈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차주는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에 제보하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9시 20분 경 경기 평택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에서 군복 차림의 남성이 주차구역 빈자리에 서 있다. 제보자가 주차를 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군인은 재차 손을 흔들며 주차가 어렵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제보자는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것 같아 연쟁없이 그냥 나왔다. 무더운 날씨에 군인이 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남성이 간부 수첩을 든 모습을 보며 상급자 지시에 따라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 했다. 동시에 해당 행위가 갑질이나 부당 지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국방색 러버콘이 나왔다, 간부 지시라면 명백한 갑질, 상관을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